2013
12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보도와 초상권 분쟁 토론회
경기 ·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인터뷰
김광규 (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사람

제162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보도와 초상권 분쟁 토론회
경기 ·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04 인터뷰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시가 태어나"
– 김광규 (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07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08 인문학 산책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09 신 동의보감
심한 기온변화에 더 위험한 심혈관 질환

10 위원단상
신속한 재난정보로 재난 피해 최소화해야

11 마이힐링푸드테라피
마른 김과 간장 한 종지

12 토론회 지상중계
"초상권 동의 범위"와 "후속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13 조정후기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 갈등, 언론보도로 확대돼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사람 | 2013. 1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1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 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초상권 분쟁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효숙** 이대 로스쿨 원장

총평을 하고 있는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8일 오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과 공동으로 "초상권 동의의 범위 및 후속 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두고 로스쿨 학생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 입장이 되어 상호 토론하고, 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들이 모의 중재부를 구성해 토론 내용을 정리한 후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12면 참조)

경기 · 인천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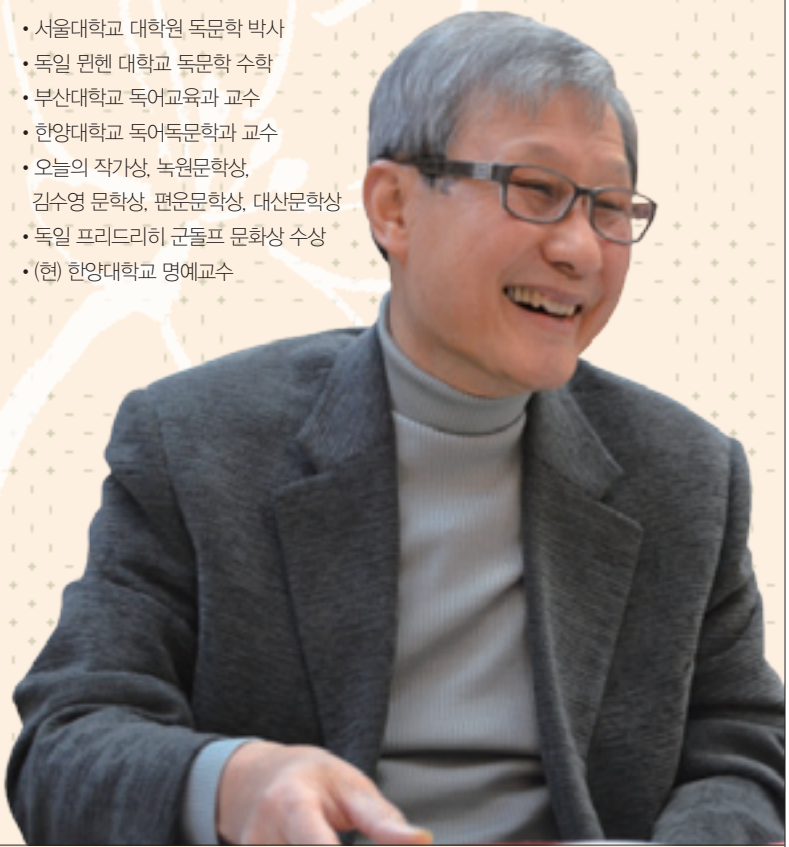
위원회는 11월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경기 · 인천 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연금 수원지법 부장판사, 류석호, 박상배 위원 등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3명과 김은환 경인일보 대표이사, 임창열 경기일보 회장, 김정섭 인천일보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이사, 송기홍 경기방송 대표이사, 윤승진 OBS경인TV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권성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언론사 대표들과 경기 · 인천 지역 언론계와 지역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시가 태어나”

김광규 (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문학 박사
- 독일 뮌헨 대학교 독문학 수학
-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 한양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오늘의 작가상, 녹원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편운문학상, 대산문학상
- 독일 프리드리히 군돌프 문화상 수상
-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중에서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나뭇잎 하나」 중에서

평범한 일상 속의 소시민성을 시로 승화시킨 시인. 쉬우면서도 쓰기 어렵고 일상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작품으로 한국시에 ‘일상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시인, 김광규 교수를 만났다.

대학시절 독문학을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독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가 대학 진학할 당시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법대나 상대 또는 의대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과를 선택했지요.

고등학교 때 외국문학전집을 많이 읽었는데, 북유럽에서 나온 작품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유럽 문학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북유럽 문학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북유럽 문학을 다루려면 독일 문학이라는 교량을 지나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독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어권 문학을 공부하다가 독일 문학이라는 원시림에 갇혀버렸어요. 독일문학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북유럽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셈이지요.

대표작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4 · 19혁명을 다룬 시로 알고 있습니다. 4 · 19혁명이 일어난 후 1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를 쓰셨는데 창작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도 시위 행렬에 참가했어요. 실제로 제 곁에 있던 친구가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지요. 그 당시 학생 시위는 순수했어요. 시위를 끝낸 다음 거리 청소로 마무리를 하고, 모두들 학교로 돌아갔으니까요.

독일에서 귀국해서 1979년 부산대 교수로 재직할 때, 부마항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위수령이 내려져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학교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시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학생지도”를 했는데, 4.19 때 학생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이 시는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을 담은 절망의 노래입니다.

원래 1979년 겨울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시해사건에 뒤이어 등장한 신군부 탄압 조치로, 게재 예정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갑자기 폐간되어 발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다음 해에 나온 저의 첫 번째 시집에 겨우 실렸습니다. 이 시는 널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많이 인용되었지요.

서른다섯 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시인으로 데뷔하셨는데요, 시를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서울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셨던 시인 조병화 선생님과 소설가 김광식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국어

작문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주셨던 선생님들이셨죠(웃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시간에 조병화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저더러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예〉잡지 문학작품 공모에 제출할 시를 써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물리 시간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런데 그 시가 장원으로 뽑혔지요. 그때부터 문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5년에 시인으로 데뷔했는데, 36개월간 군복무 후, 취직도 하고, 독일 유학도 다녀오다 보니, 등단이 늦어졌습니다.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문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인간으로 사회에 발을 딛고, 가정을 꾸리고, 생업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학(大學) 격물치지(格物致知) 편에 나오는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 일상시(日常詩)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 시인으로 유명하신데, 특별히 평범한 시어와 명료한 문장으로 시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60년대에 발표된 우리나라 현대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난해한 시였습니다. 심지어 시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써야하지 않나 하는 선입관이 들 정도였지요. 기성 시인들이 다들 난해하게 시를 쓰니까, 나도 어렵게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시의 독일시를 읽어 보면 내가 외국인인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꼭 난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써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이한 일상어로 우리의 현실을 진솔하게 다룬 일상시를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엇갈린 평단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일상시의 등장을 한국 현대시 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으로 기리기도 했고, 더러는 이것은 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평론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츰 읽다보면 한 꺼풀 뒤에 다른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또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니까 독자들이 차츰 제가 쓴 일상시를 새롭게 수용하기 시작했지요.

시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쓴 시를 하늘에 날고 있는 갈매기라고 하고 독자를 수면이라고 한다면, 갈매기가 수면의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 순간이 바로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갈매기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아래를 관찰하는 시간을 시인이 작품을 숙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수면과 맞닿는 시점은 독자들이 시에 대한 공감 또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자녀가 여럿 있는데 어느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비슷하네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8백여 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한 편 한 편 긴 고심 끝에 힘들게 탈고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을 고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서는 〈춘추(春秋)〉라는 시를 고르고 싶어요. 9번째 시집〈〈시간의 부드러운 손〉〉에 실린 작품입니다. '춘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봄과 가을을 뜻합니다.

춘추(春秋)

- 김광규

창밖에서 산수유 꽃 피는 소리

한 줄 쓴 다음
들린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며
엉술년 봄을 보냈다
힐끗 들여다본 아내는
허튼소리 말라는
눈치였다
물난리에 온 나라 시달리고
한 달 가까이 열대야 지새며 기나긴
여름 보내고 어느새
가을이 깊어갈 무렵
겨우 한 줄 더 보탰다

뒤뜰에서 흑밤나무 잎 지는 소리

이 작품은 아주 짧지만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 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새삼 깨달았다면서요. 시를 보면 극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봄부터 쓰기 시작한 시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까지 탈고하지 못하다가, 가을이 깊어갈 때 가까스로 한 줄 보태고 그만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작품 완성에 실패한 시작(詩作)의 과정을 시로 쓴 셈입니다. 자식에 비유하자면 못난 자식이지요. 손꼽히는 작품보다는 못난 작품에 더 애착이 갑니다.

●● 선생님 작품은 그동안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등 총 10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최근 시선집 '상행'은 아랍어로도 번역되어 이집트에서 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은 작품은 무엇인지요.

언어권 별로 반향에 차이가 있지만, 외국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작품은 〈안개의 나라〉입니다. 이 시는 여러 나라에서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독일어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서정시 페스

한계령 정상에서 김광규 교수와 부인(1985년). 김 교수는 주요 작품을 왕성하게 발표했던 젊은 그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시적이었다고 했다.

티벌에 초청받기도 하고 작품 낭독회도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대표작 중의 하나로 이 시를 읽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일 쾰른의 라디오 방송과, 북부독일 방송 NDR 문학 프로에 출연했을 때도 〈안개의 나라〉를 낭송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원로 시인이 《쥐트 도이췌 차이퉁》의 칼럼에서 이 시를 다루기도 했지요. 2002년에 스페인어권인 남미 컬럼비아의 메데진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서정시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개막식에서 이 시를 낭송했습니다. 이튿날 현지 유력 일간지가 개막식 보도를 하면서 뜻밖에도 이 시의 스페인어 텍스트를 컬러판으로 실었어요. 그날 낭송된 시 중에서 아마도 길이가 짧아서 채택되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원작자로서 여하튼 기분이 좋았지요. 지난 7월에는 영국 BBC 라디오 방송국 문학프로 'Poetry Please' 에서도 이 시를 방송했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나중에 저작권료를 송금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개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안개는 자연현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안개로 인해 자동차 추돌사고와 비행기 이착륙사고가 생기고, 전쟁도 안개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차단하면 청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순응하는 수밖에 없지요. 군부독재 시절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외국에서 많이 인용됐어요.

〈가을 하늘〉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가을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늘에는 구름도 떠다니고 바람도 불어야지, 구름 한 점 없이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면, 사막에 혼자 있는 것처럼 숨 막히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의 중국어 번역시집을 중국 북경대 차오원쉬엔(曹文軒) 교수에게 증정한 적이 있는데, 다음 해에 북경대 대학원 입학시험에 〈가을 하늘〉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 〈나뭇잎 하나〉라는 작품이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시가 수능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호기심에 제가 '그럼 시험지 좀 보내달라'고 했지요. 시험문제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작자미상 가사인 〈춘면곡(春眠曲)〉, 그리고 제 작품이 함께 나왔고, 문제는 총 다섯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해보았더니, 모두가 알쏭달쏭 했습니다. 결국 다섯 문제 다 틀렸습니다. 시가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차라리 외국에서 하듯이 학생들에게 초중고 시절에 시 100편을 외우게 하는 것이 시 교육에 생산적일 것 같아요.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원로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매체 상호간에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다른 신문의 논조가 틀렸다는 거지요. 편집 노선이 다른 신문들이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생각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민주 언론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사와 견해를 달리하는 타사를 헐뜯는 일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선적 태도는 독자들을 피곤하게 하니까요. 그런 지면이 있으면 오히려 독자들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더 싣는 편이 낫겠어요. 시인이 시를 통해 발언하듯, 신문 방송은 정확한 정보가 듬뿍 실린 객관적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전달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비방을 삼가야 하겠지요.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발언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 지금까지 10권의 시집을 출판하셨는데, 시인 김광규에게 '시'란 무엇인가요.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시를 몇 편 남기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독자들과 소리 없는 교신을 지속하는 매체가 저에게는 바로 시입니다. 저의 '레종 데트르(존재 이유)'인 셈이지요. 예기치 못했던 시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메모하기 위하여, 저는 항상 필기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밤중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요즘 쓰고 있는 시 구절을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갈 물건이 제게는 시를 써 놓은 원고입니다. 일실(逸失)된 원고를 되살리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시를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족, 시인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웃음)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홍보팀 차장)

COMMISSIONERS

신임 한국방송학회장 취임

유의선 위원 (서울제1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은 11월 9일 이화여대 ECC(이화캠퍼스 복합단지)에서 열린 방송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 위원은 지난 해 11월, 제26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오역사례를 모은 책 '오역의 제국' 펴내

서옥식 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은 국내에 널리 읽히는 번역물에 나오는 오역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한 책 '오역의 제국 – 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를 펴냈다. 10월 말에 발간된 이 책은 교과서, 성서, 영화, 가요, 외교문서, 언론보도, 저명인사들의 어록과 자서전, 인터넷 등에 나오는 다양한 오역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월간조선 12월호에 '외국근로자의 코리안드림' 르포 기사 게재

류석호 위원(경기중재부, 전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은 월간조선 12월호에 '한국어 열풍. 외국근로자의 코리안드림(Korean Dream)' 제하의 해외현장 르포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렴옴부즈맨'으로 활동중인 류 위원은 지난 10월 25일~2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된 제8회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참관을 계기로 이번 기획기사를 취재했다.

방송 심의 현안 토론회 진행 맡아

조성호 위원(대구중재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은 11월 8일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최한 '2013 방송심의 현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원회 소식

NEWS

또래조정자 임명 및 멘토 특강 실시

위원회가 지원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래조정 협력학교인 창덕여중과 덕성여중의 또래조정자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또래조정 절차 및 대화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아울러 창덕여중과 덕성여중 또래조정자 멘토를 자원한 정준영 인천지법원장과 송정훈 중재위원(서울제4중재부, 변호사)은 11월 13일과 15일 각각 특강을 실시했다.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또래조정 TF팀은 또래조정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모의또래조정'을 시연했고, 권성 위원장은 또래조정자들에게 본인의 저서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를 증정하고 격려했다.

인도, 태국 등 외국언론인 위원회 방문

2013년 관훈클럽-KPF 프레스펠로십에 참가한 외국인 언론인 10여 명이 11월 4일 위원회를 찾았다.

위원회를 방문한 외국 언론인들에게 한국의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자들은 위원회 조정절차와 조정사건 내용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언론보도피해와 ADR 공개강좌 개최

위원회는 11월 26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 및 ADR(대체적분쟁해결)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2차 공개 강좌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근현대회화 100선' 展 관람

위원회는 11월 20일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명화를 만나다 – 한국근현대회화 100선〉 展을 관람했다. 2013년도 직원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관람은 위원장과 서울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로부터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화가들의 작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샘터마을 봉사활동 실시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11월 23일 치매요양원 샘터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20여 명은 20kg 쌀 10포와 식자재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김장재료 다듬기, 외벽 방풍작업 등을 펼쳤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최효찬
칼럼니스트

초기 불교의 모습을 담은 '아함경'. 고타마 붓다가 35살에 깨달음을 얻은 후 80세에 입적하기까지 붓다와 그 제자들이 행한 초기불교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아함경은 붓다의 가르침이 사라질 것을 걱정한 500명의 제자들에 의해 100년 동안에 걸쳐 붓다의 가르침을 결집해 만든 경전이다. 아함경은 한 사람이 붓다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 낸 것을 함께 외워서 공인하는 형식으로 결집되었는데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으로 구성된다. 아함(阿含)은 '아가마'의 한역인데 '전하여 온 것'이라는 뜻이다.

플라톤(plato)

2,500년 전 인도에서 붓다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아함경'으로 만들어질 즈음 중국에서는 공자(B. C. 551~479)의 제자들이 모여 스승의 어록을 집대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논어는 바로 공자의 어록(語)을 모아 편집(論)한 것이라는 뜻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자하, 자유, 증자, 유자 등 제자 6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공자의 제자들은 '논어'에서 공자의 이상정치론을 '인정(仁政)'으로 요약해 스승의 '업적'으로 돌렸다. 중국의 고전을 상징하는 '논어'나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의 저자는 실은 공자나 붓다가 아닌 것이다. 제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공자는 유가(유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붓다는 불교의 진리를 만 세상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알프레드 노오스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다. "플라톤 이전의 철학은 플라톤으로 흘러들어와 플라톤으로부터 나왔다"고도 한다. 그만큼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철학이고 철학의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플라톤(B. C. 427~347)이 쓴 30여권의 책에는 대부분 스승 소크라테스가 등장한다.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은 바로 9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이고 그 위에 자신의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스승의 콘텐츠를 '슬쩍' 했고 이게 청출어람의 발판이 된 셈이다.

다산 정약용

사제관계에서 동양이 '스승'을 앞세우는 전통이라면, 서양은 '제자'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전통'(?)이 플라톤부터 형성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서양의 이런 학문적 전통이 어쩌면 스승을 뛰어넘고 혁혁한 업적을 이루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양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쩌면 스승의 학문을 뛰어넘어 위대한 연구 성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동서양 사제 간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새삼 생각해본다. 물론 이 역시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터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 선비나 학자, 정치가 등은 생전에는 '문집'과 같은 책을 내지 않았다. 책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와 친구, 자녀들이 모여 죽은 이가 생전에 쓴 글들을 모아서 발간했는데 그게 바로 '문집'이다.

그 문집의 기원은 바로 공자와 그 제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자녀들에게 글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다. 자녀가 무지하면 아버지의 문집조차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반역 죄인이 된 후에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열심히 글 읽기에 매진해 훗날 자신의 저술을 잘 세상에 드러내줄 것을 편지로 당부하기도 했다. 자식이 문맹이면 훗날 자신은 의금부 소장에 기록된 죄인의 행적만 세상에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은 현손(5세손)인 정규영이 1921년에 정리한 '사암선생연보'로 빛을 보게 된다. 그제야 다산의 진면목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와 자녀, 친구들이 만들어준 문집의 문화는 엄격한 '저술의 문화'로 이어져 우리의 정신과 학문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문집의 전통은 또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집의 전통은 자녀교육에 열성적인 문화로 이어졌다. 문집을 내지 못하면 사후에 제대로 공부한 선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해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있다. 언젠가 이 모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그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한 기온변화에 더 위험한 심혈관 질환

나승운 교수
고려의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올 여름 유난히 폭염이 계속되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기온변화로 인해 더욱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철 폭염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지면에서는 아주 추울 때 심혈관질환, 특히 심부전증과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추운 겨울날씨에 그 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갑자기 쌀쌀하고 차가운 날씨가 되거나, 새벽이나 밤늦게 온도가 매우 낮아지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면 급격한 온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체는 다각도의 변화와 적응을 하게 된다. 이제는 거주 환경이 과거에 비해 더 안락하고 좋아져서 매우 추운 겨울에도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지내고 있기에 외출시 차가운 영하의 온도에 노출될 때에 신체는 더 급격한 온도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러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악화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심장사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운 온도로 인해 광범위한 전신 혈관 수축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관상동맥의 연축(spasm)(편집자 주 : 심장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도 상당히 증가하여 협심증세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 주요 장기에 적절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맥박수도 빨라지고, 이로 인한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 악화나 관련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 고지혈증 · 동맥경화증 등 위험인자가 많은 분들은 가능한 차가운 온도에 긴 시간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보온에 신경을 쓰고, 증상의 악화가 반복될 경우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 요법이 매우 중요하다. 흡연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므로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 심근증, 심부전증 등을 쉽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두 잔의 음주는 허용하더라도 가능한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식사요법도 잘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짜게 먹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권장목표인 하루 5g이내의 소금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각종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형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 2-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최소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거나 조깅,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철에는 위와 같이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을 측정하여 이상소견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이들을 철저히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심혈관 질환의 증상들을 숙지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재난정보로 재난 피해 최소화해야

이 연 위원
대전중재부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로 언론이 난리법석을 떠는 가운데 TV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 뭉클한 광경을 보았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UN 기후협약총회에서 필리핀 대표인 예브 사노(Naderev Sano) 기후담당관의 눈물어린 호소였다. 한 국가의 대표가 세계의 대표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눈물어린 광경에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로 격려하는 장면은 숙연하기까지 했다.

지난주에 괴물 태풍 '하이옌(Haiyan)'이 강타한 필리핀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연간 20여 차례 태풍이 불어 닥쳐 2002년 이래 182차례나 태풍에 의한 재난을 겪었다. 이에 사노 담당관은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 개막회의에서 강대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이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레이테주의 주도 타클로반(Tacloban)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7일째가 되어도 식량이나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마을이 절반이 넘었고, 인명피해도 무려 50,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재난지역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인명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타클로반의 경우, 72시간이라는 구조 데드라인의 2배가 넘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구조의 물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에는 자연적인 재난이나 전쟁, 테러 등이 있다. 전쟁이나 테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국가 전체를 위기에 휩싸이게 할 수 있지만, 자연적인 재난의 경우는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국가 전체든 국지적이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천후적인 종합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까지 각종 자연재난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이지만, 기후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이는 점점 대형화되어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2011년 태국의 수도 방콕의 대홍수 사건,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진재(大震災), 지난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 등 대형 자연재난에 이어, 미국 중서부에서는 단 하루 동안 80여개나 되는 토네이도가 휘몰아쳐 미국 전역을 긴장시키곤 했다.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서부는 하루아침에 거의 초토화 되었다. 이번 토네이도의 경우는 그 규모가 최대풍속이 초속 74m 정도로 강력해 지상 위의 건물들은 물론 원전과 같은 건물도 중심기압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신속한 재난정보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난발생 이전이나 재난발생 시, 그리고 재난발생 이후에까지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그 재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관계 당국자들도 올해는 태풍이 없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국, 종편, 케이블 등과 연계해서 선진형 조기경보체제와 종합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은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마른 김과 간장 한 종지

김 태 호
기획팀 차장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일이다.

동네 단관 극장에서 심형래 주연의 '우뢰매'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텀블링을 하면 바보 형래가 똑똑하고 멋진 에스퍼맨으로 변신하는, 그래서 동네 꼬마들을 시도 때도 없이 옆 돌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우뢰매'! 꼭 보고픈 마음에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는 냈는데, 허락에는 꼬리, 아니 조건이 따라붙었다. '여동생과 함께 갈 것!' 다음날 극장으로 향하는 내 손엔 동생의 고사리 손이 철썩 붙어 있었다.

역시 에스퍼맨. 우뢰매의 인기는 대단했다. 단관 극장 앞은 꼬꼬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친구 녀석들도 군데군데 까만 머리를 한껏 치켜들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이러다 영화를 보기는커녕 표도 못 사겠다' 싶은 찰나, 하늘이 도우사 친구 어머니께서 우릴 보시고는 표를 사주셨다. 드디어 입장!

바보 형래가 텀블링 한 번에 에스퍼맨으로 변신하고, 우뢰매가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고. 보는 내내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극장 맨 앞으로 뛰쳐나가 옆돌기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 꼬꼬마에게 '우뢰매'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

에스퍼맨의 멋진 손인사와 함께 영화가 끝났다. 얼른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에스퍼맨 따라잡기 놀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득 안은 채 극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밖에 없는 극장 출구는 무척 붐볐다. 한참을 시달린 끝에야 드디어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날은 찼지만 마음은 용광로 같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영화의 감동! 대로변에서 휙휙 옆돌기를 해대며 친구들과 에스퍼맨 흉내를 내는 그 기분이란! 그런데 신이 나도 너무 났다.

한 10분을 그렇게 흥분 상태로 뛰어다녔을까? 갑자기 허전한 느낌과 싸한 느낌이 동시에 엄습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뭐지, 이 기분은?' 아뿔싸! 그랬다. 동생이 없었다. 극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동생이 사라진 것이다!

아직도 신나게 옆돌기를 하면서 깔깔대는 친구들을 두고 극장으로 냅다 달렸다. '아, 동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진짜 혼날 텐데... 걔는 손 꼭 잡고 있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별별 생각을 다 해가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극장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혼잡했고, 동생은 옷자락 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걱정도 됐다. 오만 생각이 다 났다. 추운 줄도 모르고 그저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렇게 한 10분이 지났을까? 사람들이 얼추 빠져나가고 나니, 앞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초점 없는 눈으로 극장 앞을 둘러보는데 극장 매표소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왔다. 동생이었다! 오빠도 안 보이고 사람도 너무 많고 무서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의 30여 분을 그 추운데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고맙기도 하면서 갑자기 괘씸하기도 해서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래도 동생은 오빠를 만났다는 마음에 헤헤 웃기만 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다.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허기가 밀려왔다. 마침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곧 맛있는 밥상을 우리 남매에게 내어주셨다.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영화 본 이야기, 동생을 잃어버릴 뻔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런 날 보는 엄마의 그 표정이란.

그 때 그 밥상엔 갓 구운 마른 김과 간장 한 종지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 한공기가 있었다.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뜨거운 밥 한 술을 고소한 마른 김에 싸서 간장에 살짝 담가 먹는 그 맛이란. 허기도 반찬이었을 테지만, 영영 헤어질 뻔한 동생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이 맛난 한 끼를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을지.

오늘 점심, 오랜만에 마른 김과 간장 종지를 보니 불현듯 떠오른 꼬꼬마 시절 추억이었다.

"초상권 동의 범위"와 "후속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위원회는 올해 5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갈등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사건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룬 이번 토론회는 양 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상권 동의의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과거에 동의를 받은 초상을 새로운 보도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단체 행사 사진보도에서 해당 단체의 동의 외에 개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과거 이뤄진 동의가 추후 새로운 보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므로 단체 사진보도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측 토론자들은 신청인이 과거 동의한 초상을 언론사가 유사한 기사에 재사용한 것으로 신청인의 추가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보도현장에서 초상 사용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평을 하고 있는 권오승 중재위원

강평을 하고 있는 성기용 이대 로스쿨 교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아닌 후속보도 형태로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제도의 입법취지를 볼 때, 당사자간 후속보도 형태로 합의를 한 것은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후속보도로 합의를 할 경우,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합의문항을 명시하고 이행담보 조항과 부제소 합의조항을 포함시킨다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초상권 관련 언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가 초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고 평가했다. 또한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보며, 향후 법조계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재위원, 이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생, 일반인 등 9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플로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장진훈 중재부장

(토론회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 갈등, **언론보도로 확대돼**

김문성
조사팀 차장
(서울제1중재부 조사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은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문제다. 이웃간 분쟁이 사회문제화 된 이면에는 '이웃 사촌'으로 대변되던 공동체 문화가 무너져버린 각박한 현실이 차고 앉아 있다.

층간소음이 등장하는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처럼 긍정적인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얼굴 붉히기 싫어 참고 사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분쟁은 때론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기도 한다.

최근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간 분쟁을 다룬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서울의 한 부촌. 담을 맞대고 사는 두 이웃이 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명문가이고, B씨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명문가이다. 이들의 갈등은 공유하고 있는 소방도로 주차문제에서 비롯되었다.

A씨 쪽에서 후문과 연결된 소방도로에 주차하면서, 소방도로와 주차장이 붙어있는 B씨 주차에 불편함이 발생하자 B씨는 소방도로에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담을 쌓으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래전부터 담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주차갈등으로 이웃간 편이 갈리고, 당사자와 측근 간 폭행시비가 오가는가 하면, 인터넷 언론간 대리전으로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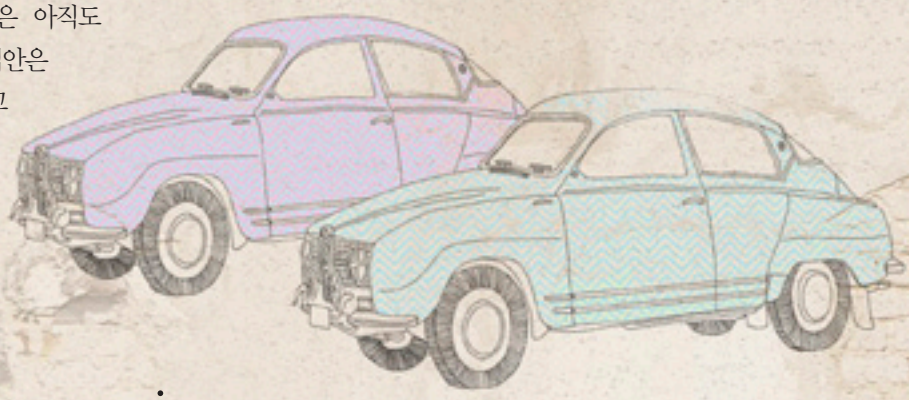
A씨 편에 선 인터넷 언론에서 주차문제를 확대해 B씨의 정치 · 행정적인 자질을 들먹이고, 급기야 리모델링 주택의 호화성, 불법성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이에 B씨에게 우호적이던 인터넷 언론은 A씨가 타인명의로 부동산 수 십 채를 소유한 재벌이라며 그의 재산 문제를 보도하고, A씨를 옹호한 인터넷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이 싸움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급기야 수 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고, 일부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차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중재부는 A씨 편에 선 언론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공인의 자질이나 행정능력 등과 연계해 보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정보도 및 3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충분한 취재와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중재부는 기사제목과 보도내용이 전혀 무관한데다, 진실보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액이 다소 과한데다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얼마 후 A씨 역시 B씨 입장에서 보도한 인터넷신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씨가 신청한 사건과 같은 수준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해당 기사는 표현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했으나,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취재를 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당사자들은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소한 이웃간 갈등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만약 언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두 집안은 고빗사위를 잘 넘기고 지금쯤 좋은 이웃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모 대학병원이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쓰고 있다는 보도,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B대학교 병원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비상경영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MRI나 CT 촬영 등 각종 검사실적을 지난해 보다 5% 늘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도관이나 고무장갑 등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는 등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대학교 병원은 직원들에게 검사실적을 늘리거나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체되었다고 보도된 물품은 종전부터 사용부서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함 없는 제품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측은 취재 당시 해당 대학병원측에서 작성한 문건을 제출하며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재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초상권 침해사례 | 검찰 소환을 받고 나온 언론사 회장의 수행기사를 동의없이 촬영 · 보도, 해당 언론사 기사 삭제 후 각 50만원씩 배상

C, D뉴스통신사와 E, F인터넷신문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신청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 이후 소속과 업무 보직이 노출되어 사회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들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각각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고 해당 기사는 삭제해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준 _ 소설가이자 교수님이신 이문열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룬 "소설은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 이라는 기사를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보았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란 작품을 만드신 분이란 걸 새로이 알았고 무엇보다도 소설가로서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겪으셨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앞뒤가 잘리거나 한 마디만 부각시켜서 보도되어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 '친일파'로 낙인 찍히기도 하셨다는데요. 언론의 지나친 과장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당사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외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언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가 언론의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악용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린 _ 저는 수원 천천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래조정에 관한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하루빨리 또래조정 같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대화와 설득에 익숙해져 사회에 나아가서도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또래 학생이 조정자가 돼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 '또래중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또래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지를 기대해 봅니다.

김혜지 _ 어머나!
다이어트 기사가 다른 곳에서 본 것과 많이 달라 놀랐습니다. 나이 따라 다르게 하는 법은 처음으로 봤거든요.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다이어트는 무조건 젊은이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무리하다 고생한 적이 있어 지금은 안하고 있답니다. 30~40대는 신체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에너지 소모량과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니. 전혀 몰랐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몰랐으니 실패할 수 밖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체 건강이 원하는 만큼만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니 꼭 명심하겠습니다. 금방 50, 60대가 될텐데 연령대별 다이어트로 건강 지키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인 대상 공개 강좌

언론피해 예방 및 ADR(대체적분쟁해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마련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12. 10. 화

15:00 ~ 16:20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유형 및 대처방안
16:30 ~ 18:00 |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 **교육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11층)
- **교육신청 및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02-397-3063/309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edu.pac.or.kr)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 Persuasion & Rhetoric Report』가 개편 발간되었습니다.

설득기법과 조정전략

조정에 필요한 설득의 주요 법칙들은 무엇인가? 설득적인 말하기 기법, 분쟁 당사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 설득을 위한 환경조성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영화, 고전 등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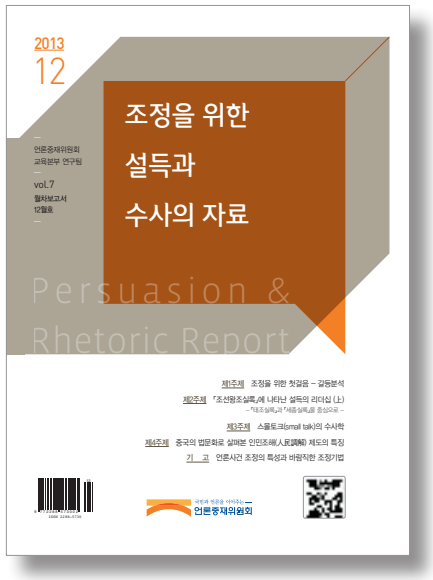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어떻게 분쟁을 슬기롭게 이겨냈을까?
역사 속 위인들의 결단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어떠했을까?
동서고금의 설득의 장면에서 오늘날 조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수사학 이론과 조정

동 · 서양 철학가, 사상가들의 설득 및 수사 이론을 조정 현장의 설득 상황에 비추어 분석, 연구한다.

각국의 ADR 사례와 제도 소개

세계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ADR의 태동 배경과 동향, 주요 ADR 사례 및 시사점을 짚어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격월간)
- 정 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구팀(02-397-3041~3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